

## 국민학생의 라면 소비실태 조사(I)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장 명 숙·황 재 희\*·현 영 희\*\*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영동전문대학\*·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by Elementary School Pupils —Kangwon do Area—

Myung Sook Jang, Jae Hee Hwang\*, and Young Hee Hyun\*\*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Young-dong Junior Collag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 Abstract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fried instant noodle) by elementary school pupils at age of 10~13 years in Kangwon-do area was surveyed by questionnaire.

About 64% among 675 pupils consumed Ramyon more than once or twice per week.

On the whole, common Ramyon was frequently consumed as a kind of substitutes for normal meal at home because of its convenience. The advertisement had strong effect on the selection of Ramyon. Especially, gummy texture of noodle and hot taste of soup are playing as a vital role in choosing Ramyon.

At presen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 between sex were observed in most cases.

#### I. 서 론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다양한 가공식품과 즉석식품이 개발되어 식생활이 간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라면은 1963년 삼양식품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공식품으로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연평균 10%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sup>1)</sup>. 또한 1인당 연간 라면의 소비량도 1983년 이래 매년 0.5 kg 정도씩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7년에는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9.9 kg에 달하고 있다<sup>2)</sup>. 이렇게 라면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라면의 소비실태나 기호도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식습관조사의 일부로서 장<sup>3)</sup>의 연구에 의하면 강원도지역의 남·녀 중학생의 경우 모두가 라면을 간식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으며 김등<sup>4)</sup>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점심식사에 라면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주부의 증가나 여성들의 식사에 대한 관심의 회복, 식품산업의 발달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편의식품의 증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은 성장발육과 지적발달이 왕성하여<sup>5,6)</sup>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한 식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sup>7,8)</sup>이다. 식습관의 변화는 사춘기이전에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로 변경이 어렵고<sup>9)</sup> 개인의 식습관은 연령, 성별, 경제수준, 교육정도, 직업, 영양정보의 매체등 각종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up>10,11,12,13)</sup>. 또한 학령기 아동은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올바른 영양교육<sup>14)</sup>과 식품산업체에서의 올바른 인식이 어린이 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습관 형성의 중요한 단계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라면의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품질인자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10세에서 13세까지의 국민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상으로 삼았으며 1988년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모두 67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6.4%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답한 675명에 대한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355명(52.6%)이고 여학생이 320명(47.4%)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라면의 소비실태와 품질인자에 대한 결과는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남·녀간의 상호관계는 상관계수(r)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단 경제, 사회적인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MV-20000 model I Computer로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소비실태

#### (1) 소비빈도

표 1에서와 같이 라면을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남학

표 1. 라면의 소비빈도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거의 먹지 않음	32	9.0	46	14.4	78	11.6
1달에 1~2회	85	23.9	80	25.0	165	24.4
1주에 1~2회	136	38.3	135	42.2	271	40.1
1주에 3~4회	79	22.3	54	16.9	133	19.7
1주에 5~6회	23	6.5	5	1.6	28	4.1
합 계	355	100.0	320	100.0	675	100.0

$$r=0.9484 (p<0.05)$$

생의 경우 9.0%, 여학생의 경우 14.4%로 여학생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주에 라면을 5회이상 먹는 경우도 남학생이 6.5%, 여학생이 1.6%로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에 1회이상 라면을 먹는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67.1%를 차지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60.6%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라면의 소비빈도가 높으며 이때 성별에 따라서는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라면을 먹지 않는 이유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맛이 없음	20	17.1	18	14.3	38	15.6
밀가루 음식이 싫음	13	11.1	21	16.7	34	14.0
먹을 기회가 없음	28	23.9	29	23.0	57	23.5
영양가가 나쁨	32	27.4	22	17.5	54	22.2
기 타	24	21.5	36	28.5	60	24.7
합 계	117	100.0	126	100.0	243	100.0

$$r=0.3033$$

라면을 자주 먹지않는 남학생 32.9%, 여학생 39.4%를 대상으로 먹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영양가가 나빠서가 27.4%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의 17.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며 그 다음이 먹을 기회가 없어서로 23.9%를 차지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기타의 이유가 2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먹을 기회가 없어서로 23.0%를 나타냈다.

(2) 소비시기 및 장소

라면을 1주일에 1회이상 섭취하는 432명을 대상으로 라면을 먹는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남학

표 3. 라면을 먹는 시기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아침 식사	3	1.3	4	2.1	7	1.6
점심 식사	83	34.9	57	29.4	140	32.4
저녁 식사	106	44.5	103	53.1	209	48.4
간 식	46	19.3	30	15.4	76	17.6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0.9619(p<0.05)$

생의 경우 44.5%가 저녁식사로, 34.9%가 점심식사로 먹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53.1%로, 저녁식사로 먹는 비유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9.4%가 점심식사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19.3%가, 여학생의 경우는 15.4%가 간식으로 라면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장<sup>4)</sup>이 보고한 강원도 지역의 남·녀 중학생이 라면을 주로 간식으로 먹는다는 보고에 비하여

표 4. 라면을 먹는 장소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가 정	213	89.5	179	92.3	392	90.8
구내 식당	12	5.0	11	5.0	23	5.3
음 식 점	5	2.1	2	1.0	7	1.6
기 타	8	3.4	2	1.0	10	2.3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0.9997(p<0.001)$

국민학생의 경우는 간식보다는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라면을 먹는 장소에 대하여 표 4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각각 89.5%, 92.3%가 가정이라고 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학생들은 라면을 가정에서 식사대용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령기의 영양적 측면에서 볼때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제품별 기호도

라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표 5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회사나 제품의 구별없이 선택한다는 비율이 46.2%로 가장 높는데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특정회사의 여러제품을 먹는다는 비유이나 구별없이 선택한다는 비율이 35~36% 정도로 비슷하였다.

표 5. 라면 선택 방법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특정회사의 특정제품	70	29.4	54	27.8	124	28.8
특정회사의 여러제품	58	24.4	69	35.6	127	29.3
구별 없음	110	46.2	71	36.6	181	41.9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0.3979$

한편 주로 먹는 라면의 형태는 표 6에서와 같이 100원 짜리 라면을 먹는 경우가 남학생은 35.3%, 여학생은 45.

표 6. 라면의 형태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00원짜리 라면류	84	35.3	89	45.9	173	40.0
200원짜리 라면류	61	25.6	41	21.1	102	23.6
우동형 라면류	21	8.8	21	10.8	42	9.7
용기 면류	18	7.6	12	6.2	30	7.0
구별 없음	54	22.7	31	16.0	85	19.7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0.9131(p<0.05)$

9%로 가장 많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구별하지 않고 먹는다는 것으로 남학생은 22.7%, 여학생이 16.0%로 나타났다. 이때의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는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라면을 먹는 이유

라면을 먹게되는 이유는 표 7에서와 같이 남·녀학생의 경우 식사대용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58.0%, 56.2%이었으며 맛이 좋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남·

표 7. 라면을 먹는 이유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경제성	12	5.0	1	0.5	13	3
맛	72	30.3	60	30.9	132	30.6
편의성	138	58.0	109	56.2	247	57.2
영양가	7	2.9	0	0	7	1.6
부모님이 주심	9	3.8	24	12.4	33	7.6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0.9769(p<0.01)$$

녀학생이 각각 30.3%, 30.9%로 나타나 대체로 편의성과 맛 때문에 라면을 먹는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그다음 이유가 가격이 싸기 때문으로 5.0%를 차지했으며 이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의 경우보다 라면을 간식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표 3에서 보여진 것처럼 다소 높고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에 대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주시기 때문이 12.4%로 남학생의 3.8% 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서 자녀중 특히 여자의 식습관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보고<sup>14)</sup>와 유사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는 2.9%가 영양가가 좋기 때문에 라면을 먹는다고 답해 국민학교 남학생에게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결과는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5) 라면선택의 동기

라면을 선택하는 동기는 표 8에 나타난 것같이 남·녀학생의 52.5%, 54.1%가 선전 또는 광고에 의하여 선택한 것으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제조회사를 보

표 8. 라면 선택의 동기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조 회사	63	26.5	52	26.8	115	26.7
선전 또는 광고	125	52.5	105	54.1	230	53.2
포장 또는 디자인	10	4.2	7	3.6	17	3.9
신제품을 위주	35	14.7	26	13.4	61	14.1
친구의 권유	5	2.1	4	2.1	9	2.1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0.9995(p<0.001)$$

고 선택하는 것으로 남·녀학생이 각각 26.5%,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sup>15)</sup>의 보고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한 과도한 선전등은 식습관이 형성되어 고정화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 2. 품질인자에 대한 기호도

### (1) 품질요인

라면을 먹는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자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학생의 경우 41.6%, 45.4%가 국물을, 16.8%, 10.3%가 면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국물과 면발 둘다 중요하다고 한 경우는 37.1%, 39.2%로 나타났다. 이때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9. 라면의 품질요인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면 발	40	16.8	20	10.3	60	13.9
스프의 맛	99	41.6	88	45.4	187	43.3
둘다 중요	88	37.0	76	39.2	164	37.9
모르겠음	11	4.6	10	5.1	21	4.9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0.9825(p<0.05)$$

**(2) 면발의 조직감**

면발의 조직감에 대하여는 표 10과 같이 남·녀학생의 51.3%, 57.7%가 보통굵기의 면발을 좋아했으며 그 다음으로 굵은 면발은 23.5%, 25.8%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하여 남학생은 면의 굵기를 구별하지 않는 비율이 15.

표 10. 면발의 굵기에 대한 기호도

	남		여		합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굵은 면발	56	23.5	50	25.8	106	24.5
보통인 면발	122	51.3	112	57.7	234	54.2
가는 면발	24	10.1	19	9.8	43	10.0
구별 없음	36	15.1	13	6.7	49	11.3
합 계	238	100.0	194	100.0	432	100.0

$r = 0.9833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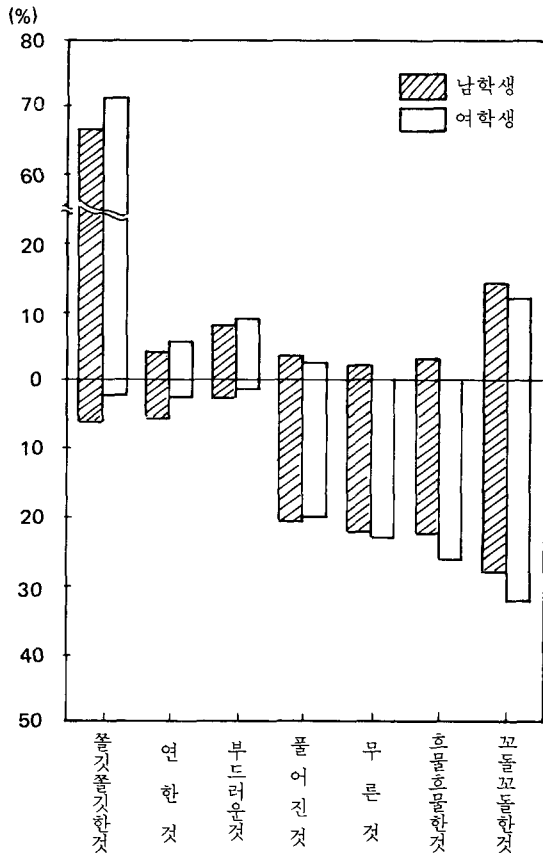


그림 1. 라면 면발의 조직감

(상 ; 선호하는 조직감, 하 : 기피하는 조직감)

1%로 여학생의 6.7%보다 높았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면발에 대한 기호도가 예민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이들 남·녀학생간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의 면발조직에 대한 좋아하는 상태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쫄깃쫄깃한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66.4%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71.6%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과 달리 무른것과 흐물흐물한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2.1%, 2.5%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3) 국물의 맛**

가장 좋아하는 국물의 맛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얼큰한 맛의 경우는 남·녀학생이 각각 75.6%, 72.2%로 남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구수한 맛의 경우는 각각 16.6%, 18.6%로 나타났으며 담백한 맛의 경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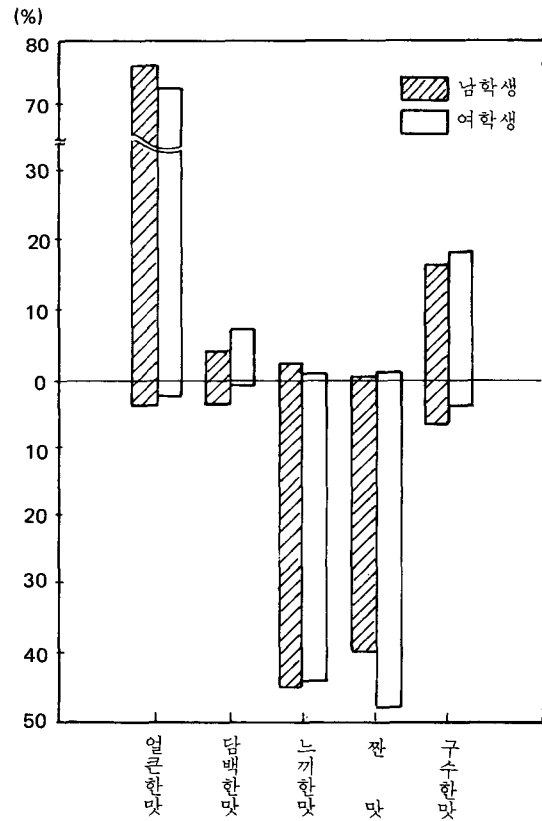


그림 2. 라면 국물의 맛

(상 ; 선호하는 맛, 하 : 기피하는 맛)

남녀학생이 각각 3.9%와 7.2%로 나타나 구수한 맛과 담백한 맛은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싫어하는 국물의 맛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남학생의 45.0%가 느끼한 맛을 40.3%가 짠맛을 싫어했고, 여학생의 경우는 느끼한 맛이 44.3%로, 짠맛은 47.9%로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때 라면의 국물 맛은 성별에 따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학령기 아동에 대한 올바른 영양교육의 실시가 요구되며 경제적, 사회적 변수가 고려된 지역별, 연령별 및 직업별에 따른 라면의 소비실태와 기호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요약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10세에서 13세까지의 국민학교 아동 675명을 대상으로 라면의 소비실태와 품질인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675명중 64%가 1주에 1회이상 라면을 먹고 있으며 대부분이 식사대용으로 가정에서 먹고 있다. 라면을 먹는 이유로는 편의성과 맛 때문인 것이 주를 이루었고 대체로 선전 또는 광고에 의하여 라면을 선택하고 있었다.

2) 라면을 주 1회이상 먹는 432명의 43.3%가 라면의 국물맛을 중요시했으며 대체로 보통굵기의 면발을 선호했다. 한편 면발의 조직감중 쫄깃쫄깃한 것을 가장 좋아했으며 꼬들꼬들한 것과 흐물흐물한 것을 가장 싫어했다. 국물의 맛은 얼큰한 맛을 가장 좋아했으며 느끼한 맛과 짠맛을 싫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라면을 먹지 않는 이유와 라면선택 방법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참고문헌

- 1) 김성곤: "우리나라의 밀가루 이용 실태 조사". 단국대학교 부설 식량개발 연구소, 1988.
- 2) 한국 통계 월보, 경제 기획원, 1987.
- 3) 김상애, 鈴木久及: 급식학교 어린이의 식생활에 대한 고찰. 한국영양학회지, 21(4), 1988.
- 4) 장명숙: 강원도 지역 남녀 중학생의 식습관 및 식품기호에 관한 조사. 관동대학 논문집, 13권 1985.
- 5) 이기열: 특수영양학. 신광출판사, 1985.

- 6) 박일화, 김숙희, 모수미: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 7) Collis, W.R.E., Margaret. J.: Multifacial Causation of Malnutrition and Retarded Growth and Development Malnutrition. Learning and Behavior. Cambridge. MIT Press. 1967.
- 8) 김숙희, 유영상: 국민학교 아동의 영양 섭취 실태와 성장 발육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6(2), 1973.
- 9) Schorr. B.C., Sanjur. D., Erickson. E.C.: Teen age food habit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ADA, 61: 415, 1972.
- 10) Williams. E.R. and Caliendo. M.A.: Nutrition, McGraw Hill Co. New York 1984.
- 11) Dunn. M.D.: Fundamentals of Nutrition, CBI Co, Boston. 1983.
- 12) Garn. S.M., Bailey. S.M., Cole. P.E., Higgins. I.T.: Level of education, level of income and level of fatness in adult Am. J. Clin. Nutr. Vol. 30, 1977.
- 13) 김숙희: 영양 실태 조사에 의한 연령과 사회적 계층별 영양상태 판정. 식품영양 정보.
- 14) 이성숙: 경남지역 국민학교 아동의 도시락 영양실태 및 식품 기호에 대한 조사연구. 경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7.
- 15) 이주연: 서울지역 학령기 아동의 비만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섭취 및 일반 환경 인자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5.
- 16) 김기남, 모수미: 자녀의 식습관 육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양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9(1), 1976.
- 17) Caliendo. M.G., Sanjur. D., Wright. J. and Cummings. G.: Nutritional Status of Preschool Children J. Am. Dietet. A. 71, 1977.
- 18) 현화진, 모수미: 일부 고소득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어린이의 성장발육 및 영양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3(1), 1980.
- 19) 이명숙: 농촌 소도시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 20) 한백란: 서울시내 초·중학생들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21) 정순자, 김화영: 주부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4), 1985.
- 22) 손경희, 문수재, 이영미: 각 연령층에 따른 한국인 섭취태도 및 영양실태의 생태학적 연구. 연세농촌, 1981.
- 23) 염초애, 장명숙, 김동희, 황재희: 한국 여자 중학생의 식습관과 식품 기호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1984.